

# 21세기 라틴아메리카 종교 파노라마: 위기에 처한 가톨릭교회

조영현

## I. 들어가며

지난 세기까지만 해도 라틴아메리카는 전통적으로 ‘가톨릭 대륙’이란 수식어가 따라다녔다. 전 세계 가톨릭 신도의 절반가량이 이곳에 집중되어 있어 유럽에서 가톨릭의 쇠퇴를 만회할 ‘희망의 대륙’으로 불렸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 더욱 가속화하는 종교지형 내부의 변화는 이제 가톨릭교회의 패권을 위협하고 있다. 많은 가톨릭 신도들이 기존 신앙을 버리고 타종교로 개종하거나 교회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냉담(冷淡) 신도가 되기 때문에 ‘불안한 대륙’이란 말이 회자되고 있다.

원주민이나 흑인 문화에 뿌리를 두고 종교혼합적 특색을 보이는 정령숭배 신앙들, 중·상류층을 향해 파고드는 인도와 동양에서 기원한 종교들, 새롭게 유입된 뉴에이지 운동, 무서운 속도로 번성하는 개신교는 가톨릭의 종교시장 독점을 무너트리고 있다. 이것은 최근 들어 더욱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종교 다원주의와 무관한 것이 아니다. 여기에 2010년 들어 연이어 터지는 가톨릭 성직자들의 성추행 파문이나 동성애 스캔들은 가톨릭의 도덕성 추락으로 이어져 교회 지도부에 대한 불신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또한, 70-80년대 라틴아메리카를 휩쓴 해방신학과 투쟁하면서 더욱 보수화한 라틴아메리카 주교단들은 최근 개혁을 추구하는 좌파 성향의 정권들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충돌이 발생하는 나라에서는 정권의 비협조로 사목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런 사황을 중심으로 대표적인 21세기 라틴아메리카 종교 현상을 살펴볼 것이다. 특히, 이 지역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가톨릭교회의 위기에 대해 초점을 맞출 것이다.

## II. 가톨릭교회와 좌파정권과의 갈등

최근 정권을 잡은 라틴아메리카의 급진적 좌파세력과 가톨릭교회의 관계는 갈등과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 베네수엘라에서 우고 차베스가 정권을 장악한 이후, 가톨릭교회는 그동안 친정부적 태도를 버리고 정권에 대한 반대세력의 중심축으로 등장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서구의 전통에서 성장한 가톨릭은 자본주의 체제를 더 지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에 대해서는 적대적이었다. 가톨릭의 이런 성향은 주교들로 하여금 결국 베네수엘라에서 차베스가 실현하고자 하는 ‘21세기 사회주의’에 대해 배타적 혹은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게끔 만들었다. 베네수엘라 주교단은 특히 공격적이고 독재적인 차베스의 개인 성향을 우려한다. 따라서 정권의 권위주의적 성격과 권력을 한 개인에게 집중시키는 것에 거부감을 보인다. 베네수엘라에서 주교들은 차베스정권이 사회주의, 권위주의, 독재화로 나아가고, 결국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정권이라고 판단한다. 주교들은 야당, 사설 언론과 방송매체, 반정부 학생운동권, 기업인 등과 연대하여 기득권 세력을 대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차베스도 자신의 개혁프로그램을 실행하는데 장애요소로 가톨릭교회 지도부를 지목했다. 교회의 주교들을 “혁명의 암적 존재”라고 천명함으로써 자신이 주교들을 신뢰하지 않음을 분명히 밝혔다.<sup>1)</sup> 차베스정권은 주교회와의 그 지도부의 핵심 인사들을 비난하거나 모욕함으로써 정부와 교회 간 긴장관계를 야기했다.

최근의 대립은 교육관련 문제에서 발생했다. 우고 차베스는 2009년 8월 다양한 사회 세력들 사이에 첨예한 입장 대립이 있었던 새 교육법을 공포했다. 우고 차베스는 이 법을 선포하며 기존의 ‘사업으로서의 교육’ 개념 및 ‘제국의 신하들을 양성하는 교육’과 단절한다고 밝혔다. 국가 주도 무상교육, 민중교육, 종교적 색채를 배제한 교육을 공식적으로 천명했다. ‘교육자로서의 국가’라는 개념을 통해 교육에 있어 국가의 지도적 역할을 강조했다. 베네수엘라 교육부 차관은 이 새 교육법이 지니는 이념적·정치적 의미를 숨기지 않았다. 교육을 통해 21세기 사회주의 이념과 윤리를 학생들에게 이식하겠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1) Rodrigo Conde Tudanca (2007), “Tensas relaciones entre la Iglesia católica y el Gobierno de Hugo Chávez en Venezuela 1999-2006,” <http://www.reseau-amerique-latine.fr/ceisal-bruxelles/HIST-RI/HIST-RI-2-CONDE.pdf>, p. 9.

베네수엘라 주교들은 새 교육법이 피교육자에게 차베스가 선전하는 ‘21세기 사회주의’ 이념을 주입시키는 도구로 사용될 뿐 아니라 부모의 ‘자녀 교육권’을 국가가 박탈한 것이라며 반대했다. 특히, 가톨릭교회는 국·공립이나 사립학교에서 종교교육을 공식적으로 배제하려는 차베스의 시도 때문에 더욱 강력히 저항했다. 이 법이 승인되자, 카라카스의 대주교인 호르헤 우로사 추기경은 “학교에서 하느님을 추방할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교육은 전통적으로 가톨릭교회가 국가와 함께 양분해 왔던 분야이다. 어떤 의미에서 두 세력 간 이해가 중첩되는 교집합적 공간이다. 국립학교들을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의 사립학교들은 직·간접적으로 교회와 관계를 맺고 있다. 특히, 교회는 기초교육에서 고등교육까지 전 분야에 영향을 미치며, 직접 명문대학과 다양한 성격의 학교를 운영한다. 이 교육 분야는 현금이나 기부와 더불어 교회 수입의 중요한 원천이다. 가톨릭교회에게 교육 영역은 경제적 이권 뿐 아니라 도덕과 윤리를 형성시키며, 신자들을 확보하고, 신자 재교육의 장(場)으로 이해되어 더욱 잃어서는 안 되는 영역이다. 이 부분에서 교회가 소외되는 것은 곧 사회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 감소를 의미한다.

볼리비아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일어났다. 2009년 에보 모랄레스는 자신의 개혁정책에 반대하며 보수야당세력에 동조하던 가톨릭교회를 거짓말쟁이요, “유럽식민주의의 살아있는 상징”이라고 비난했으며, 가톨릭교회가 볼리비아에서 사라져야 한다고까지 주장했다.<sup>2)</sup> 특히, 교육과 세금 등, 특권적 지위를 누리는 가톨릭교회의 일부 권한을 박탈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이 주도 하던 교육개혁에 반대해 학부모협회와 사립학교협회를 사주하여 정권에 저항하도록 종용한 교회 지도부에 못마땅해 했다. 특히, 야당과 결탁해 자신의 권력 기반에 위협을 가하는 가톨릭 주교단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자 했다. 주교들과 볼리비아 주교회의 의장인 홀리오 페라사스 추기경을 향해 기도와 정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압박했다. 그리고 2009년 브라질 세계사회포럼에서는 볼리비아의 평화적 개혁의 주된 적이 바로 보수적인 가톨릭교회라고 천명했다. 동시에 “또 다른 세상이 가능한 것처럼, 또 다른 신앙, 다른 종교와 교회도 가능할 것이다”라며 가톨릭을 대체할 새 교회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sup>3)</sup> 그리고 2009년 2월 승인된 새 헌법이 발효되면 교회의 특권이 사라질 것이라며

2) <http://es.catholic.net/foros/viewtopic.php?f=33&t=202>

3) <http://www.aciprensa.com/noticia.php?n=24155>

협박까지 했다. 2010년 5월 17일 에보 모랄레스는 바티칸에서 교황과 만난 자리에서 볼리비아 주교들이 정치문제에 개입하고 있다는 불만을 토로했다.<sup>4)</sup>

에콰도르의 라파엘 꼬레아는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 및 볼리비아의 에보 모랄레스와 함께 미국과의 FTA 반대, 남미국가들 간의 결속 강화, 반 세계화를 주장하고 있다. 꼬레아는 시민혁명으로 기존 과두정치를 타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2009년 3월 제헌의회 구성을 위해 국회를 무력화하고, 4월에는 국민투표를 실시해 제헌의회 구성을 추진하는 등 우고 차베스의 정치 개혁을 모방하고 있다. 꼬레아 대통령도 베네수엘라와 볼리비아에서처럼 개헌 과정에서 자국 주교단과 대립했다. 그는 헌법이 종교의 정치 참여를 금하고 있음에도 설교대가 보수주의 성직자들이 정치적 구호를 외치는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며 교회의 정치 참여를 꼬집었다. 주교들이 헌법의 일부 조항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새 헌법이 지나치게 국가주의적이라고 비판하자, 꼬레아는 이전 헌법이 민영화와 사유화를 촉진하는 헌법이었던 것에 대해서는 왜 침묵했느냐며 성직자들을 비난했다.<sup>5)</sup>

2009년 6월 온두라스에서 일어난 쿠데타는 전 라틴아메리카에 충격을 안겼다. 마누엘 셀라야 대통령이 자국에서 쫓겨난 이유는 온두라스의 정통적 엘리트층을 형성한 보수 지배층의 이익에 반해 체제 개혁을 시도했기 때문이다. 친미적 성향의 보수 재계와 군부, 가톨릭교회는 개혁적인 셀라야 대통령에게 압박을 가했고, 셀라야는 우고 차베스나 에보 모랄레스처럼 국민투표를 통해 이 정국을 정면으로 돌파하려 했다. 그러나 ‘온두라스의 베네수엘라화’를 두려워하는 반개혁세력은 쿠데타로 응수했다. 쿠데타가 발발하자, 오스칼 안드레스 로드리게스 추기경은 기다렸다는 듯이 온두라스 주교단을 대표해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의 요지는 “개혁을 주장하는 사람은 즉시 직무 수행이 중지되고, 향후 10년간 공직수행을 금지한다”는 헌법 239조에 근거해 셀라야는 대통령직을 상실했다는 것이다.<sup>6)</sup> 결국, 쿠데타 세력의 주장이 합법적임을 천명하고, 주교들인 자신들도 그 주장에 동의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로드리게스 추기경은 추방된 셀라야 대통령이 온두라스로 돌아온다면 폭력 사태로 피바다가 될 것이므로

4) <http://larazon.es/noticia/2137>

5) <http://elcomercio.pe/ediciononline/html/2008-08-02/>

6) Conferencia Episcopal de Honduras (2009), “Edificar desde la crisis,” [http://www.iglesiacatolicasps.com/comunicado\\_cch.html](http://www.iglesiacatolicasps.com/comunicado_cch.html), p. 1.

돌아오지 말라고까지 경고했다. 이러한 가톨릭교회 지도부의 태도는 개혁세력과 민중 세력의 분노를 야기했다. 셀라야를 합법적인 통치자로 인정하는 국민저항전선(FRN)과 시위자들은 가톨릭주교들이 민중을 위하는 듯 가장하면서 항상 엘리트층을 지원한다고 비난했다.

라틴아메리카에서 선거에 의해 민주적으로 선출된 좌파 노선의 정권과의 직접적인 대립과 갈등은 가톨릭교회의 입지를 약화시키고 있다. 특히 가난한 사람들과 민중층이 선호하는 개혁에 반대해 기존의 기득권 보수층의 입지를 정치적으로 강화시켜주는 모습은 교회 내 가난한 사람들의 이탈을 촉진시킬 뿐 아니라 교회 내부 진보와 보수 간 갈등과 분열을 조장할 소지도 높다.

가톨릭교회와 갈등을 빚는 좌파정권들은 가톨릭 선교와 사목활동에 비협조적인 자세를 취하며, 재정이나 행정적 지원을 줄이고 있다. 게다가, 그들의 견제 세력으로 개신교나 타종교를 지원하는 경향도 보이고 있다. 이런 현상은 이미 베네수엘라에서 나타나고 있다. 차베스를 지지하는 종교인들이 조직한 ‘베네수엘라 개혁가톨릭교회’가 대표적이다.<sup>7)</sup> 차베스 정권도 자신을 지지하는 일부 개신교에 협력적 자세를 취하고 있다.

### III. 가톨릭교회의 내적 위기: 추락하는 도덕성

2009년 파라과이에서 터진 전직 주교 출신 대통령 페르난도 루고의 스캔들도 라틴아메리카에서 가톨릭의 도덕성과 권위를 실추시키는데 한 몫 했다. 그는 지난 2008년 대선에서 좌파정당과 사회단체 연합체인 ‘변화를 위한 애국 동맹’을 기반으로 빈곤층과 농민, 노동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등에 업고 보수우파 정당인 꼴로라도당의 61년 장기집권을 종식시켰다. 그러나 2009년 4월에 루고 대통령의 자녀를 낳았다고 주장하는 여성들이 등장하면서 도덕적, 정치적 위기

7) ‘베네수엘라 개혁가톨릭교회’는 사회주의와 차베스의 개혁을 종교적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 가톨릭과 루터교에서 이탈한 성직자를 중심으로 만들어졌다. 베네수엘라 주교회의는 이 교회를 인정하지 않는다. 더 나아가, 교회가 분열되어 있다는 인상을 국민들이 갖게 하기 위해 차베스 정권이 이 교회를 지원한다고 주장한다. ‘베네수엘라 개혁가톨릭교회’의 수장이며, 옛 솔리아주 교회의 보좌주교였던 존 젠 시우 가르시아(John Jen Siu Garcia)는 “우리는 차베스 대통령이 하는 것처럼 하층계급을 바라보는 법, 자본주의 가치로부터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법, 미제국주의에 대해 투쟁하는 법을 배우고 있다”며 우고 차베스에 대한 사상적 친밀감을 표출했다. Enrique Krauze (2008), *El poder y el delirio*, Caracas: Editorial Alfa, p. 107.

를 맞았다. 주교직을 수행하던 중 알게 된 16세의 미성년자인 비비아나 까리요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루고 대통령은 비비아나의 아이가 자신의 아들임을 인정하고 불완전한 인간으로 범한 자신의 죄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했다. 그러자 연이어 나타난 다른 두 명의 여성들도 루고 대통령에게 자기 자녀들의 아버지임을 인정하라고 요구했다. 상대적으로 깨끗한 이미지를 무기로 부패적결과 빈곤퇴치에 대한 기대감을 주면서 정치무대에 등장한 루고 대통령은 자신의 이미지뿐만 아니라 자신이 몸담았던 가톨릭교회의 이름에도 먹칠을 했다.

루고 대통령의 스캔들이 파라과이에 국한된 문제였다면, 2010년 초반부터 붉어진 성직자들의 아동 성추행 파문은 아일랜드와 독일을 비롯해 전 세계를 강타했다. 교황청이 사건을 은폐하고 침묵했다는 비난을 받는 와중에 라틴아메리카에서도 같은 스캔들이 터졌다. 먼저 아르헨티나에서는 어린이들을 위한 보호시설을 건립했던 홀리오 세사르 그라씨 신부가 아동성추행 문제로 고발당해 15년 형을 선고받았고, 에드가르도 스포르니 신부는 같은 혐의로 8년형에 처해졌다. 약 1억 5000만으로 세계 최대 가톨릭 신도를 보유한 브라질에서는 82세의 루이스 마르케스 바르보사 신부가 한 청년과 성관계하는 장면이 그대로 공중파에 공개되면서 스캔들에 휩싸였다. 칠레에서도 성직자의 소아성애(小兒性愛) 스캔들이 터져 사제가 범정에 섰고, 콜롬비아에서도 유사한 일들이 벌어졌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스캔들이 성직자 한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가톨릭 성직자에 의한 아동 성추행 파문은 그동안 침묵하거나 침묵을 강요당했던 희생자들의 문제를 수면위로 끌어올렸다.

브라질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장 많은 가톨릭 신도 수를 보유한 멕시코도 예외는 아니다. 교회의 자체 통계에 의하면, 멕시코에는 총 14,618명의 신부가 6,101개의 본당에서 봉직하고 있다.<sup>8)</sup> 예전에도 성직자들에 의한 성추행 사건들이 발생했지만, 신부들이 공개적인 법적 처벌을 받는 경우는 드물었다. 주로 교회가 운영하는 학교나 성당에서 봉사하는 어린 복사들이 소아성애 성향을 가진 사제들에 의해 희생자가 되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교회는 자신의 이미지 실추를 막기 위해 쉬쉬했다. 많은 경우, 성추행 사제가 계속 성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타 지역 교회나 다른 나라로 파송하는 방법으로

8) [http://www.wradio690.com/nota\\_imp.aspx?id=984102](http://www.wradio690.com/nota_imp.aspx?id=984102)

사건을 은폐했다.

2010년 3월 25일 ‘그리스도의 군단(Legionario de Cristo)’ 총장은 그동안 부인했던 창립자 마르시알 마시엘 신부의 부정과 성추행 행위에 대해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서한을 회원들과 신도들에게 발송했다. ‘그리스도의 백만장자들’라는 별칭이 말해주듯, 풍부한 자금을 가지고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는 수도회이다. 여러 나라에서 상류층 자제들의 교육을 담당하며 막강한 자금을 이용해 멕시코와 바티칸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1997년부터 마시엘 신부에 대한 고발장이 교황청에 접수되었으나, 현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교황이 된 후 이 사건을 덮었다. 마시엘 신부가 고령인데다 마약 중독에 의해 건강이 악화된 상태였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 대해 침묵한 멕시코의 노르베르토 리베라 추기경도 공범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마시엘 신부의 사건을 조사한 기자들이 책을 출판해 이 사실을 알렸으나, 서점에서 이 책들은 곧 바로 사라졌다. 오히려 이 책의 저자들은 교회를 음해한다는 이유로 수도회와 신자들로부터 봉변을 당했다. 결국, 마시엘 신부가 2008년 87세의 나이로 사망한 뒤에야 수도회 총장은 마시엘 신부가 두 명의 여인으로부터 3명의 자녀를 두고 이중생활을 했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러나 더 부도덕한 것은 이 신부가 자기 아들을 성추행했었다는 사실이다. 이 사건은 멕시코 뿐 아니라 라틴아메리카 가톨릭교회에 치명적인 해악을 끼쳤다.

2010년 4월 멕시코시 수석 대주교인 노르베르토 리베라 추기경을 비롯해 라틴아메리카 각국 주교회의는 자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성추문과 관련된 어떠한 사제도 용서하거나 보호하지 않을 것이라는 ‘제로관용’ 정책을 선언했다. 신자들에게 만일 유사한 범죄에 대해 아는 사람들은 사법당국이나 교회에 고발할 것을 종용했다. 그러나 이미 가톨릭의 도덕적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 이 지역에서 도덕성의 추락은 가톨릭교회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한 때 절정기에 있던 중세 가톨릭이 붕괴한 것은 외부의 도전 때문이 아니라 내부의 부패와 도덕성의 위기 때문이었다. 라틴아메리카에서 가톨릭교회는 지금 내부로부터 무너지고 있다.

#### IV. 가톨릭교회의 외적 위기: 종교 다원주의의 확산

데이비드 스톨(David Stoll)이 ‘라틴아메리카는 개신교로 전환하는가?’ 라는 도전적 질문을 던진 지 벌써 20년이 지났다. 물론 아직도 라틴아메리카는 개신교화 한 대륙이 아니다. 그러나 가톨릭의 패권이 약화되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미 여러 통계 지수들이 이를 증명한다.

〈표 1〉 라틴아메리카의 비가톨릭 인구 비율 (%)

	WVS 95-97	NM 2004
브라질	17.94	20.03
칠레	16.33	25.04
우루과이	11.27	26.60
콜롬비아	11.14	18.18
베네수엘라	7.54	13.97

출처: World Value Survey (1995-1977); Nationmaster.com(2004). Cristián Parker 2005, 37 재인용.

위의 표에서 보듯이, 브라질의 경우 비가톨릭 인구는 이미 전체 인구 중 20%를 넘어섰고, 칠레의 경우 25%, 우루과이의 경우 26%나 차지하고 있다. 멕시코도 예외는 아니다. 2000년 전국인구조사센세스 때 88.2%의 주민이 자신의 종교가 가톨릭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2005년에 조사된 통계자료를 보면 가톨릭 인구의 감소가 두드러진다. 멕시코 일간지 레포르마(Reforma)는 가톨릭 인구를 82%, 라틴바로미터(Latinbarometer)는 78%, 그리고 입소스(Ipsos)는 80%라고 밝혔다.<sup>9)</sup> 2000년 조사와 2005년 입소스의 자료를 비교하면, 5년간 약 8.2%의 신자 감소율을 보인 것이다. 또한, 라틴아메리카 국가 중 개신교 신도 수가 전체 주민의 10%를 차지하는 국가는 아래와 같다. 주로 중미 지역에서 개신교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남미에서는 칠레와 브라질이 대표적인 개신교 성장 국가로 부상하고 있다.

9) Elio Masferrer Kan (2007), “La Iglesia católica. De religión de estado a religión de las mayorías. Nota sobre la crisis estructural,” in *Christus*, No. 760 (mayo-junio), p. 13.



〈표 2〉 라틴아메리카 국가 중 개신교가 10% 이상 차지하는 비율 (2003년)

과테말라	25
온두라스	17
엘살바도르	16
칠레	15
브라질	15
코스타리카	15
파나마	15
볼리비아	11
아르헨티나	10
에콰도르	10
도미니카공화국	10
페루	10
니카라과	10

출처: Cristián Parker 2005, 37.

라틴아메리카에서 개신교의 약진은 두드러진다. 특징적인 것은 이 대륙의 개신교 신도 중 60~70%가 오순절 교파를 신봉한다는 점이다. 오순절 교파는 세계적으로도 연간 8.1% 정도 성장하는데, 라틴아메리카도 예외는 아니다. 이 종교의 성장 뒤에는 미국의 선교사 파견과 물질적 지원이 큰 역할을 하고 있지만,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다. 최근에는 미국의 원조와 무관하게 현지 종교지도자를 통해 자생적으로 발전하는 오순절 교파 계통의 교회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 교회들은 성령의 활동, 치유, 방언, 예언 등을 강조하며, 신학적으로는 ‘번영의 신학(Prosperity theology)’에 기초해 있다.<sup>10)</sup> 기복적이며 단순명료한 설교의 메시지는 빈민층이나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에게까지 쉽게 수용된다. 열정적 찬양, 그리스도와 개인적 관계, 평신도의 교회 내 지도력 그리고 선교의 의무를 중시한다. 이 대륙에서 오순절 교파의 적극적인 선교는 가톨릭 신도들의 이탈을 촉진시키고 있다.

게다가,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개신교 신도들 중 대다수가 주일 예배와 교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라틴아메리카 가톨릭 신도

10) 번영복음(Prosperity gospel)에 기초한 신학이다. 번영복음이란 하느님을 믿는 자들이 건강과 부의 축복을 누릴 권리가 있으며, 신앙 고백과 십일조, 헌금 등을 통해 이 같은 축복을 성취하게 된다는 가르침이다. 주로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급성장 중인 은사주의나 오순절 교파 계통의 기독교가 주로 설파하는 신학이다. 이 신학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번영신학이 진정한 복음의 메시지를 왜곡할 소지가 있고, ‘달콤한 그리스도’만 선포하려 한다고 비난한다. 특히, 이 신학이 지닌 기복주의, 성공주의, 행복주의의 위험성을 경고한다.

들의 다수가 제 방식대로 믿고 생활하는 ‘제 멋대로 신자’라는 점과 대조적이다. 가톨릭교회에는 세례, 결혼, 장례 등 가족과 친지 관련 행사 때만 성당에 가거나, 신자이면서 아예 교회활동과 의무를 소홀히 하는 ‘쉬는 신자’가 많다.

왜 라틴아메리카 사람들은 오순절 교파의 종교적 제안에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가톨릭교회에서 멀어져 가는가? 아만도 로블레스(Amando Robles)는 오순절 교파가 점점 일반화하는 세속화된 문화에 더 잘 적응하고 있다는 견해를 밝히며, 이 종교가 개인주의적이고 실존적이라 위계적이고 교의적인 측면이 강조되는 가톨릭 보다 변화하는 새 문화에 더 잘 부흥하고 있다고 주장한다.<sup>11)</sup> 제도의 구속에서 자유로운 오순절 교파 종교지도자들과 신도들은 평범한 용어와 일반인들이 관심 갖는 구체적인 문제들을 주제로 대화하고 선교한다. 이 대화 속에서는 생활고, 이혼, 실업, 질병, 자녀문제, 폭력, 외로움 등 생활 속에서 쉽게 부딪치는 문제들이 주로 다루어진다. 개별적 접촉을 통한 선교 전략 외에도 개인들에게 다가가기 쉬운 TV나 인터넷, 라디오 등의 방송매체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효과를 극대화 한다.

오순절 교파는 가톨릭에서 방치한 가난한 사람들에게 접근해 신도로 끌어들이고 있다.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한 사람들은 이 종교가 설파하는 메시지에서 자신의 필요로 하는 정신적 위안을 얻고 교인들 간의 상부상조를 통해 물질적 필요를 더 잘 충족시킨다. 70~80년대 해방신학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그러나 교황청과 보수적 성향의 주교들은 해방신학이 좌파적 사고에 물들어 있다는 이유로 견제하고 억압했다. 가톨릭교회는 가난과 비참한 상황 속에서 사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결과적으로 그들을 방치한 꼴이 되었다. 원주민, 농민, 도시빈민 등 빈곤계층의 상당수가 오순절 교파로 개종했다.

1990년대 이후 지난 20년간 급속히 진행된 라틴아메리카 신자유주의는 사회, 정치, 경제적 측면에서 공공부문을 모두 사유화 하는 쪽으로 진행되었다. 모든 공적인 영역이 축소되었고, 사적 영역이 강조되었다. 가치의 상대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이 지역에서 ‘신앙의 탈 제도화’ 현상도 가속화되었다.<sup>12)</sup> 종교가 오랫동안 가족이나 지역 공동체 안에서 전통적, 혹은 문화적 수용 형태로 후세대에

11) Amando Robles (2010), “Crisis de la religión en América Latina,” in *Christus*, No. 760 (enero-febrero). p. 3.

12) Ibid., pp. 4-5.

전수 되었다면, 최근에는 점차 사적인 개인의 선택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즉, 집단적이거나 공동체적인 것, 혹은 수직적이거나 위계적인 것들을 멀리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새로운 문화적 경향은 위계적이며 권위주의적인 가톨릭에 위협적 요소로 작용한다. 따라서 레네 아코스타(René Acosta)는 민주적이고 자본주의화 된 사회에서 집단적이고 위계적인 구조보다, 현세적이며 개인주의적인 종교가 더 매력적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sup>13)</sup> 이것은 현대성과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영향 받으며 확산되는 새로운 문화는 오순절 교파와 같은 신흥종교에 유입을 촉진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크리스티안 파커(Cristián Paker)는 라틴아메리카가 ‘가톨릭 대륙’에서 명백한 종교적 다원주의로 이동하고 있다고 주장한다.<sup>14)</sup> 이점은 단지 오순절 교파가 선도하는 개신교의 증가라는 특징 말고도 다양한 종교들이 유입되고, 기존의 원주민, 혹은 아프리카-아메리카 문화에 뿌리를 둔 종교들이 성장하고 있는 현실에서 드러난다. 아시아 등에서 발생한 동양 종교들도 중·상류층에 서서히 유입되고 있고, 몰몬교, 여호와의 증인도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원주민적 요소와 가톨릭이 결합된 종교혼합적 요소를 지닌 종교와 범신론적 종교들이 원주민 주거지를 중심으로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다. 또한, 아프리카 흑인 문화와 가톨릭이 절묘하게 결합된 산테리아, 부두교, 움반다, 간돔블레 등의 정령숭배적 종교들도 브라질과 카리브 해를 넘어 점차 민중층으로 확산 중이다. 이 지역 주민들은 전통적 가톨릭이 아닌 새 종교에서 자신의 새로운 정체성을 찾으려는 강력한 욕구를 표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제 라틴아메리카도 헌법에 명시된 ‘종교자유의 권리’를 생활 속에서 누리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점차 종교문제에 있어서 상당한 정도로 자주적 판단과 선택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개인의 종교적 자율성은 현대화된 사회에서 발견되는 종교 다원화에 의해 더욱 강화되고 있다. 여러 가지 신앙 진술과 도덕 계율을 제시하는 종교들이 공존하는 까닭에, 개인들은 종교를 시장에서 물건 고르듯 임으로 선택하게 되었으며, 마음에 안 들면 쉽게 바꿀 수 있게 되었다. 이 대륙도 각기 다른 종교 전통 간 수평성이나 평등성이

13) René Acosta (2005), “La realidad religiosa y espiritual de Iberoamérica,” [http://didache.nts.edu/index2.php?option=com\\_docman&task=doc\\_view&gid=585&Itemid=39](http://didache.nts.edu/index2.php?option=com_docman&task=doc_view&gid=585&Itemid=39), pp. 1-8.

14) Cristián Paker (2005), “¿América latina ya no es católica? Pluralismo cultural y religioso creciente,” in *América latina hoy*, No. 41, pp. 35-36.

강조되는 종교 다원주의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 V. 나가며

한때 현대화가 진행될수록 과학, 합리주의, 실용적 관점 때문에 비합리적이고, 때로는 미신적이기까지 한 종교는 약화되거나 사라질 것이라는 주장이 있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가속화한 사회적 현대화는 전 세계적으로 종교의 르네상스 시대를 열었다. 이런 현상은 라틴아메리카에서 더 두드러졌다. 새 종교들이 유입되어 번성하고, 새 종교그룹이나 새 종교공동체가 신설되었다. 원주민과 관련된 토착적 요소들이 부활했고, 종교혼합적 요소를 지닌 아프로.아메리카 계열의 종교들이 민중층에 급속히 세력을 확대했다. 라틴아메리카도 이제 가히 ‘종교 백화점’ 시대가 된 것이다.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라틴아메리카는 20세기 후반 이후 급격한 사회, 정치, 경제, 문화적 변화를 겪으며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다. 라틴아메리카 사람들은 삶의 의미, 목적들을 새 종교공동체와 새 도덕에서 찾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기존 가톨릭이 자신들의 위기, 긴장, 불안을 해소시키고 위안을 주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옛 신앙체계 혹은 기존 종교가 장기간 계속된 사회위기와 불안, 폭력의 상황 때문에 발생한 트라우마를 치유하거나,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지 못하는 것 같다. 이것은 가톨릭 신도들의 이탈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마디로 가톨릭의 종교적 패권 상실의 의미하는 것은 기존 가톨릭이 라틴아메리카 사람들의 심리적·감정적·사회적 요구에 대해 제대로 응답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가톨릭교회의 지도부는 가난한 사람들과 민중층의 지지로 당선된 라틴아메리카 좌파 정권들이 주도하는 개혁정책에 반기를 들고 있다. 이것은 좌파 정권과의 갈등을 불가피하게 만들고 있다. 이런 모습 때문에 가톨릭에 실망하고 이탈하는 신자가 증가할 여지도 있다. 이런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더라도 라틴아메리카에서 가톨릭은 신자들의 일상생활과 유리된 신앙이 되어가고 있다. 열정, 사랑, 동정이 없는 생동감을 상실한 껍데기만 화려한 교회로 비쳐진다. 현실과 유리된 피임과 무조건적인 동성에 반대, 이혼에 대한 완고한 입장 등 지나친 도덕적 훈계와 충고도 긍정적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 같다. 또한, 중앙집권화되고

완고한 위계적 이미지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한 전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서거 전 라틴아메리카의 ‘재복음화’를 화두로 던졌다. 이 대륙에서 가톨릭이 약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역동적인 교회, 더 선교적인 교회가 되라는 주문을 했다. 이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제 5차 라틴아메리카 주교회의가 브라질 아파레시다(Aparecida)에서 2007년 5월 개최되었으며, 주교들은 그동안 사용한 사목방법에 대해 제고하고, 선교와 공동체 구조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최종문서를 발표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현재까지 선언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

라틴아메리카 가톨릭교회가 내·외적으로 위기에 봉착한 것은 사실이다. 유럽적 그리스도교 모델의 위기를 라틴아메리카에서도 목도하고 있다. 라틴아메리카의 가톨릭적 정체성과 동질성이 종교 다원주의의 확대로 약화될 것이다. 옛날 같이 종교영역을 독점하거나 국가와의 관계에서 특권을 누리는데 제한을 받을 것이다. 라틴아메리카에서도 종교적 관용주의가 일반화 되어가고 있으므로, 라틴아메리카 종교는 다양화한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며 점차 분절화할 것이다. 라틴아메리카에서 이제 종교 다원주의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다.

## 참고문헌

- Acosta, René (2005), “La realidad religiosa y espiritual de Iberoamérica,” [http://didache.nts.edu/index2.php?option=com\\_docman&task=doc\\_view&gid=585&Itemid=39](http://didache.nts.edu/index2.php?option=com_docman&task=doc_view&gid=585&Itemid=39), pp. 1-8.
- Bastian, Jean Pierre (1994), *Protestantismos y modernidad latinoamericana*, México: FCE.
- Cipriani, Roberto (2004), *Manual de sociología de la religión*, Mexico: Siglo XXI.
- Conde Tudanca, Rodrigo (2007), “Tensas relaciones entre la Iglesia católica y el Gobierno de Hugo Chávez en Venezuela 1999-2006,” <http://www.reseau-amerique-latine.fr/ceisal-bruxelles/HIST-RI/HIST-RI-2-CONDE.pdf>, pp. 1-15.
- Conferencia Episcopal de Honduras (2009), “Edificar desde la crisis,” [http://www.iglesiaticolicasps.com/comunicado\\_ceh.html](http://www.iglesiaticolicasps.com/comunicado_ceh.html).
- Canclini, García (2003), *Cultura híbridas. Estrategias para entrar y salir de la modernidad*, México: Grijalbo.
- Garma Navarro, Carlos (2007), “Diversidad religiosa y políticas públicas en América Latina,” in *Cultura y religión*, Vol. 1, No. 1 (marzo), pp. 1-12.
- Houtart, François(coord.) (2002), *Religiones: sus conceptos fundamentales*, México: Siglo XXI.
- Krauze, Enrique (2008), *El poder y el delirio*, Caracas: Editorial Alfa.
- Levine, Daniel (2005), “Pluralidad, pluralismo y la creación de un vocabulario de derechos,” in *América latina hoy*, No. 41, pp. 17-34.
- Masferrer Kan, Elio (2002), *Sectas y iglesias: Viejas y nuevas religiones*, México: Plaza y Valdés.
- \_\_\_\_\_ (2007), “La Iglesia católica. De religión de estado a religión de las mayorías. Nota sobre la crisis estructural,” in *Christus*, No. 760 (mayo-junio), pp. 1-17.
- Monsiváis, Carlos y Carlos Martínez García (2002), *Protestantismo, diversidad y tolerancia*, México: Comisión nacional de los derechos humanos.
- Paker, Cristián (1998), “Nuevo panorama, nuevos movimientos religiosos

- en América Latina,” in *Documentación social*, No. 113, pp. 211-222.
- \_\_\_\_\_ (2005), “¿América latina ya no es católica? Pluralismo cultural y religioso creciente,” in *América latina hoy*, No. 41, pp. 35-56.
- Robles, Amando (2010), “Crisis de la religión en América Latina,” in *Christus*, No. 760 (enero-febrero), pp. 1-14.
- Stoll, David (1993), *¿América Latina se vuelve protestante?*, Quito: Ediciones Abya-Yala.

[www.es.catholic.net](http://www.es.catholic.net)

[www.aciprensa.com](http://www.aciprensa.com)

[www.larazon.es](http://www.larazon.es)

[www.elcomercio.pe](http://www.elcomercio.pe)

[www.wradio690.com](http://www.wradio690.com)